

창원지역 마을도서관 운동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양 재 한

〈창원전문대학 문헌정보과 부교수〉

목 차

1. 서 론
2. 창원시 주민통합 과제
3. 창원지역 마을도서관 현황 분석
 - 3-1. 마을도서관갓기 운동 현황
 - 3-2. 마을도서관 현황
4. 마을도서관 운동의 방향성
 - 4-1. 마을공동체
 - 4-2. 선과 축의 연결
 - 4-3. 신뢰성 확보
5. 결 론
- 참고문헌

1. 서 론

창원시에는 1995년 7월 지역주민들의 힘으로 세워진 사파동성 마을도서관과 1995년 8월 봉림 복지회관에 세워진 봉곡 마을도서관, 금년 상반기에 개관할 대원동 복지회관과 팔용동 복지회관의 마을도서관이 있다.

창원시에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지역의 공공부

문과 민간부문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경남정보사회연구소’가 1994년 10월 창립되어 마을, 직장, 학교도서관 갓기 및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마을도서관을 통한 도서관사업 뿐만 아니라 건전한 정보문화 형성사업, 사회교육사업, 문화예술사업을 연구·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사파동성 아파트 단지내에 지역주민과 협의하에 마을도서관을 설립하였고,

창원시에 소재한 9개 복지회관중의 하나인 봉림 복지회관을 창원시로 부터 운영권을 위탁받아 1995년에 마을도서관으로 개편하여 개관·운영하고 있으며, 1996년 부터 나머지 8개 복지회관 운영권을 위탁받아 마을도서관 개관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

1945년 해방이후 50여년 동안 ‘마을문고’운동을 비롯하여 수많은 도서관운동들이 일어났지만 많은 부분이 기대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실패하였다. 이러한 운동이 실패한 주요 요인에 대하여 최성진교수는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강연에서 ‘지적기반’의 부족 때문이라고 하고 있으며,¹⁾ 이러한 지적기반을 공급하는 일은 문헌정보학 연구자, 주로 문헌정보학 교수들의 몫이라고 하고 있다.

이어 최성진교수는 본인이 수행한 한 조사에서 조사대상이 된 64편의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잡지 기사중에서 한국의 도서관봉사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연구는 45.3%, 약하게 관련되거나 전혀 관련되지 않는 연구가 전체의 54.7%였다고 한다.²⁾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해방후 각종 도서관운동들이 ‘지적기반’을 지니지 못한 주요한 이유가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한국의 도서관 발전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였으며, 이에따라 우리나라 도서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한국적 도서관 실정에 맞는 자생적인 이론과 기술을 확보하지 못함이 각종 도서관운동을 실패하게 만든 주요한 요인으로 생각되어 진다.

1987년부터 대학도서관 개혁운동이 부산대학을 비롯하여 경북대학, 전남대학, 충남대학 등에서 일어나 나름대로의 ‘지적기반’을 확보한채 대학내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이 사실이다.

이들 운동은 대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운동이었기에 나름대로의 운동성과 지적기반을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도서관운동의 많은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찾아야 한다.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존재하며,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필요와 욕구도 다양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문제해결의 접근방법은 대체적으로 미시적으로 접근하였다. 이에따라 현장사서들은 쉽게 지쳐버리고 도서관 운동에 주체자로 나서지 못하였다.

지역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주변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체이다. 따라서 지역 도서관 환경을 호의적으로 변화시키는데는 지역사회에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거시적 접근방법이 산적한 공공도서관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거시적 접근방법이란 지방화시대에 공공도서관 외부의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공공도서관 내부로 불러 넣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이다. 즉, 도서관 내부의 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문제에 관심있는 시의원, 언론사기자, 현장사서, 지적기반을 제공해 줄 교수들 등 외부인사들로부터 운동성을 확보하여 도서관 내부와 주민속으로 침투할 때 도서관내부 문제는 어느

1) 최성진,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 기초연설 - 광복 50년과 도서관의 세계화, pp. 7-9.

2) 상계서, p. 10.

정도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해결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원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서관운동에 대한 '지적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창원시에 대한 지역주민·사회연구에 바탕을 둔 창원시 주민통합과제와 창원시의 마을도서관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따른 창원지역 마을도서관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창원시 주민통합 과제

창원시는 한반도 동남단 경상남도의 중부 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시와 같은 위도상에 있는 도시는 부산, 김해, 마산, 진주, 광주시이며, 같은 경도상에 있는 도시는 진해, 대구, 영주, 양양 등이다.

오늘날 창원시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1974년 발굴된 성산패총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선사시대 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창원시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국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1970년대 이후부터이다.

1973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6542호로 창원면, 상남면, 웅남면 전역과 내서면의 구암, 합성, 회성, 두척의 4개리와 구산면의 예곡, 우산, 현동, 덕동의 4개리가 마산시에 편입되고 웅천면 전역이 진해시에 편입되었다.

1974년 4월 1일자 건설부고시 제92호로 마산시의 두대동, 덕정동, 삼동동, 반송동, 연덕동, 용지동, 목동, 토월동, 외동, 정동, 가음정동, 남

산동동 12개동 전역과 서상동의 27개동 일부지역 43,352㎡를 대규모 기계공업기지 건설을 위하여 산업기지개발지역으로 지정하였다.

1976년 9월 1일자 경상남도 조례 제853호로 경상남도 창원지구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80년 4월 1일자 법률 제3188호로 창원지구출장소 관할전역과 마산시 의창동을 편입하여 18개 행정동으로 창원시를 설치하였다.

1983년 7월에는 경상남도청, 동년 9월에는 경상남도 교육위원회가 옮겨오자 도단위 행정 및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온 나머지, 공단배후도시로 출발한 창원시가 행정 중추기능을 확충하면서 지역중심도시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이에 '창원도시기본계획(1984)'을 수립하여 자족적 완결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지만, 주거·상업지와 공업지의 비율이 1 : 1.07로 공업지에 비해 주거지가 협소하여 공단배후도시의 역할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1995년 구창원군의 동면·북면·대산면과의 통합으로 종래의 면적의 1.3배가 늘어난 291.62㎡로 용지난 해결은 물론 경남지역의 산업·경제, 정치·행정 및 교육·문화의 두뇌·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부여된 것이다.

창원시는 정부의 국가공단건설에 따른 배후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건설되어 깔끔한 계획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강력한 주도 아래 형성된 도시의 성격이 지방자치시대에 와서는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참여가 창원시 발전의 중요한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 9월말 현재 창원시 인구는(경남통계

계보, 1995. 3/4)469,220명이다. 1976년 창원 지구출장소가 설치될 당시 43,815명으로 출발하여, 1980년 시로 승격될 당시 창원시 인구는 11만여명이 넘어서면서 현재는 인구 50여만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1986년부터 1993년까지 8년 동안 창원시의 인구는 공단배후도시로서의 기능과 경남의 행정 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유입인구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수 증가가 인구증가를 주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자연적 요인에 의한 인구증가가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증가 요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국의 인구 증가율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당해기간 중 자연적 요인에 의한 인구 증가율은 2%를 넘어 전국의 증가율 0.9%대에 비하여 2배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자연적 인구증가율이 높은 주요한 이유는 성별·연령계층별 인구구조에서 출산력이 높은 연령대인 25세에 39세까지의 계층이 전시민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젊고 출산력이 높은 도시임을 알수 있으며, 이에따라 0-4세의 인구구성 비율이 12.7%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의 성별·연령 계층별 인구구성에서는 0-4세의 비율이 8%인 것과는 비교해보면 더욱 젊고 출산력이 높은 도시임을 알수 있다.

창원시의 인구구조의 특징은 65세이상 노년층 인구구성이 2.45%로 전국의 5.56%에 비하

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가장 많은 인구를 보이는 연령대는 30대로 전 인구의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9세 이하가 21.8%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20대와 10대, 그리고 40대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비하여 전국의 인구구성비에서는 가장 많은 구성비를 보이는 연령대는 20대로 19.17%, 그 다음이 10대로 18.9%, 다음이 9세이하, 30대, 40대, 50대순으로 되어 있다.

창원시는 현재까지는 10대의 인구구성이 낮으므로 타도시에 비하여 비교적 청소년범죄 문제가 적은편이나 9세이하 인구구성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유치원 취원율이 1994년 현재 28.1%로, 전국 평균 38.7%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인근 마산시의 취원율 30.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³⁾

1993년 말을 기준으로 창원시의 중분류 산업별 총사업체 종사자 수와 이에따른 비율은 다음과 같다.⁴⁾

총수 147,687명(100.0%), 농업, 수렵업, 임업 50명(0.0%), 어업 0명, 광업 7명(0.0%), 제조업 83,591명(56.6%), 전기, 가스, 수도사업 403명(0.3%), 건설업 6,853명(4.3%),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 15,517명(10.5%), 숙박, 음식점업 7,593명(5.1%), 운수, 창고, 통신업 4,829명(3.3%), 금융, 보험업 3,685명(2.5%),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4,568명(3.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 5,

3) 창원상공회의소·경남신문사, 21세기를 향한 창원시의 좌표와 발전과제; 심포지움자료, 1995. 5. 26(창원호텔 목련홀), p. 46.

4) 경상남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1994. pp. 86-309.

615명(3.8%), 교육서비스업 5,442명(3.7%), 보건 및사회복지사업 1,356명(0.9%), 기타 공공 및 사회, 개인서비스업 8,178명(5.5%)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에서 알 수 있듯이 창원시에서는 사업체 기준으로 15만명 중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57%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공공행정, 교육 기타 사회, 개인 서비스업 종사자가 모두 합하여 약 15%를 점하고 있어 공단 배후도시에서 도단위 행정중추도시로의 이행과정을 엿볼 수 있다.

창원시는 신생도시이므로 외지 유입인구가 절대적으로 많고 주민의 거주기간도 대단히 짧다. 현재 거주지 선택동기에 대한 사회조사에서 '옛날부터 살아와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창원시의 경우 13.37%로, 인근 진주 26.24%, 진해 36.31%보다⁵⁾ 외지 유입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1986년 한해동안 창원시 인구 188,961명에 49.5%에 해당하는 93,474명이 전출·입자이며, 1989년은 303,108명에 52.1%에 해당하는 157,985명, 1992년은 384,816명에 64.4%에 해당하는 248,003명이 한해동안 창원시 이외의 지역에서 전입했거나 전출한 숫자이다. 그러나 1993년에는 창원시 인구 399,393명에 186,327명의 전출·입을 하여 그 비율이 46.6%로 낮아지고 있다.

상기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창원시민들은 창원을 '내가 사는 곳', '나의 도시', '우리 도시'라는 의식은 대단히 낮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회지표조사에서 교통등 도시여건과 경제구조의 발달로 도내 어느 도시보다 자가용 보유비율이 높으며⁶⁾, 거주 지역사회의 전반적 평가에서 살기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70.92%로, 울산 27.60%, 마산 52.24%, 진해 67.5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3년후 지역사회 의 예상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도 66.85%가 좋아질 것으로 응답하여, 울산 54.20%, 마산 56.40%, 진주 58.32%, 진해 60.0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웃간의 친밀도 조사에서도 잘 알고 지내는 비율이 65.69%로 나타나고 있어⁷⁾ 도시발전에 청신호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 여가시설 만족도 및 불만사유에 대한 질문에 52.00%가 불만으로 응답하였으며, 66.60%가 시설의 절대부족을 불만사유로 응답하였다.⁸⁾

상기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도시의 양적팽창에 치중한 나머지 시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내실을 지닌 삶을 살 수 있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는 부족한 점이 있는 도시로 지적되어진다.

향후 창원시의 절대적인 과제가 시민생활의 구심점 형성의 문제이다. 시민생활의 구심점이

5) 경상남도, 경남의 사회지표, 1994. p. 372.

6) 자가용 1대당 인구로 창원 7.7명, 울산 8.6명, 마산 11.3명, 진주 10.7명, 진해 11.5명(경상남도, 경남의 사회지표, 1994. p. 292)

7) 경상남도, 경남사회지표, 1994. pp. 382-386.

8) 상계서, pp. 426-429.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므로 역사가 일정한 창원시는 현재로는 불가피한 현상인 지도 모른다.

유입인구의 비율이 높은 창원시는 생활권 단위로 공동체의식 고양을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져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창원도시기본계획, 1993년’에는⁹⁾ 창원시 전체를 대생활권으로하여, 3-6개의 소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5개의 중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있다. 중생활권으로는 상북 중생활권(5개의 소생활권), 중앙 중생활권(6개의 소생활권), 상남 중생활권(3개의 소생활권), 가음 중생활권(3개 소생활권), 기타 중생활권(4개 소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1개의 소생활권으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 이들 소생활권 단위로 마을공동체 의식 고양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9조 2항에 제시하고 있는 공립문고¹⁰⁾ 성격인 마을도서관을 행정동 단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주민 통합의 시설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3. 창원지역 마을도서관 현황

3-1. 마을도서관 갖기 운동 현황

창원시에는 마을, 학교, 직장마다 도서관 갖기 및 살리기 운동을 연구·실행하기 위한 단체인

‘경남도서관 및 정보문화발전연구소’가 설립되어 활동 중에 있다. 이 연구소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지역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구성한 연구·실행단체로 도서관 사업과, 사회교육사업, 문화예술사업을 연구·실행하고 있다.¹¹⁾ 도서관 사업으로는 마을, 직장, 학교 도서관 갖기 및 도서관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1995년 7월 23일 사파동성 아파트 단지내에 ‘사파동성 마을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1995년 8월 30일 봉림 복지회관내에 ‘봉곡마을도서관’을 개관하였다. 또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는 도의회 도서관 설립운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정보망 구축에도 동참하고 있다.

사회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사림동 복지회관에 1995년 1월부터 마을학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1995년 2월부터는 봉곡, 봉림 복지회관, 1995년 8월부터는 사파동성 아파트에 마을학교를 운영 중에 있다. 이를 위하여 마을마다 전문인력을 발굴하여 마을교사화를 위한 운동과 마을내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있다.

문화예술사업으로는 마을문화 창조운동과 지역공동체 문화형성 운동의 일환으로 마을단위의 축제, 합창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마을도서관을 기본 축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위와 같은 운동을 연구·실행하기 위하여 지역에 뜻있는 도서관 관계자, 시의원, 대학교수등

9) 창원시, 시정백서, 1995. pp. 499-507.

10) 제39조 2항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 단위의 지역에 공립문고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11)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연구소 개소 1주년 기념행사 및 세미나 자료집, pp.19 - 26.

17명이 모여 1994년 6월 29일 창원도서관 회의실에 모여 가칭 '경남도서관 및 정보문화발전 연구소'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 하였으며, 이때 공동대표로 이은진 교수(경남대 사회학과 교수)와 양재한 교수(창원전문대 문헌정보과 교수)를 선출하였다. 동년 10월 동 연구소 개소식을 가졌으며, 이때 소장으로 이은진 교수(경남대 사회학과 교수)와 정영애 교수(창원대 교육학과 교수)를 선출하였다. 그 이후 연구소의 이사장으로 1995년 7월 차정인 변호사를 선출하였으며, 동년 9월 연구소 명칭을 '경남정보사회연구소'로 개칭하였으며, 현재는 지역사회에 의식있는 40여명의 지역인사들이 이사로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

1995년 개관한 사과동성 마을도서관과 봉곡 마을도서관, 복지회관내의 마을학교 운영요원으로 사서요원 2인과 사회교육전문요원 4인을 연구소 소속으로 채용하여 파견 근무케 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9개 복지회관의 운영권을 창원시로 부터 위탁받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운영요원으로 사서요원 4인과 사회교육전문요원 6인을 채용하여 교육 중에 있다.

3-2. 마을도서관 현황

경남정보사회연구소를 중심으로 창원시에 세워지고 있는 마을도서관은 사립문고 성격인 아파트 단지내에 세워진 마을도서관과 공립문고

성격인 복지회관내에 세워진 마을도서관의 형태가 있다.

아파트 단지내에 세워진 마을도서관으로는 1995년 7월 23일 사과동성 아파트 단지내에 개관한 '사과동성 마을도서관'이 있다. 상기 마을도서관은 아파트 주민 1800여세대를 대상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시설은 30평 규모의 단층 독립건물과 열람좌석 20여석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창원시에는 신도시 및 공단지역 조성으로 인한 이주민들의 경제사회 및 문화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이주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9개의 복지회관이 건립되어져 있다. 이들 9개 복지회관의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¹²⁾

(표 1)과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은 하였으나 창원시 사회진흥과 자체 평가 자료에 의하면, 마을학교와 공부방 외에는 상시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공부방은 중·고등학생의 하교후에만 이용되고 있어 낮에는 텅빈건물로 방치되며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되어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¹³⁾

이에 복지회관 운영활성화 방안에 하나로 창원시에서는 마을도서관 갖기운동을 하고있는 단체인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는 기존의 복지회관을 마을도서관으로 개편하여 자료를 통한 정보봉사, 사회교육봉사, 문화예술평사 등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운동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다.¹⁴⁾

12) 창원시 사회진흥과, 창원시 마을회관운영 활성화 계획, p. 1.

13) 상계자료, 동면.

14)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창원시 복지회관 활성화 방안(1995,11), p. 3.

〈표 1〉 복지회관 시설현황

(단위: 평)

동 별	개 소	1 층		2 층	
		8개소	9개소	9개소	8개소
계	9	노인실(13.0)	회의실(14.0)	공부방(14.0)	청소년실(13.0)
동 정 동	1	노인실(13.0)	회의실(14.0)	공부방(14.0)	청소년실(13.0)
팔 용 동	1	노인실(10.0)	다목적실(14.0)	공부방(13.0)	청소년실(15.7)
봉 곡 동	1	노인실(22.4)	회의실(14.0)	공부방(41.0)	마을학교(22.4)
	1	음악감상실(20)	다목적실(33.6)	공부방(20.0)	도서관(33.6)
사 립 동	1	중고품교환(30)	무료식당(60.5)	공부방(30.0)	독서실(60.5)
반 지 동	1	노유자실(23.4)	다목적실(37.0)	공부방(38.5)	청소년실(23.9)
대 원 동	1		회의실(55.0)	공부방(36.0)	
사 파 동	1	노유자실(23.4)	다목적실(45.7)	공부방(45.7)	청소년실(25.3)
중 앙 동	1	노유자실(20.5)	다목적실(25.4)	공부방(18.7)	청소년실(15.7)

이에따라 1995년 8월 30일 봉곡동 복지회관 내에 봉곡마을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현재 33.6평규모에 35석의 열람석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대원동 복지회관과 팔용동 복지회관에는 1996년 상반기 중으로 마을도서관 개관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나머지 복지회관에도 점차적으로 마을도서관 개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사파동성 마을도서관의 운영은 최고 의결기구로 입주자 대표회가 있어, 도서관 운영에 관한 예산 및 결산과 운영규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산하에 운영위원회가 있어, 도서관 시설 및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도서관 제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도서관

입 및 장서구성에 관한 사항, 재정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되 매분기별로 입주자 대표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¹⁵⁾ 실무는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 파견된 사서1인과 사회교육전문요원 1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부 자원봉사요원 30명 내외, 청소년 자원봉사요원 50여명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봉곡마을도서관의 운영은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 파견된 사서1인, 사회교육전문요원 1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사파동성 마을도서관의 장서현황은 1995년

15) 사파동성마을도서관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 8조 참조.

12월말 현재 1995년 7월 23일 개관한 이후 자체구입도서 1,310책, 주민기증 864책, 창원도서관에서 단체대출받은도서 1,578책, 책사랑에서 단체대출 받은 도서 1,514책, 한국도서관협회기증 57책, 창원도서관 기증 537책 합계 5,860책의 장서로 봉사하고 있다.¹⁶⁾ 예산은 개관한지 얼마되지 않아, 월 운영예산을 살펴보면 대충의 연간예산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월 수입은 입회비, 후원회비, 사회교육등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 아파트 복지관 어린이집 임대료¹⁷⁾ 등 합계 2,500,000원이며, 지출은 인건비 1,300,000원(52%), 자료구입비 300,000원(12%), 기타운영비 900,000원(36%)로 구성되어 있다.

1995년 8월 30일 개관한 봉곡마을도서관의 장서현황은 1995년 12월말 현재 구입도서 1,707책, 기증도서 1,065책, 기존공부방도서 800여책, 합계 3,572책중에서 자료의 훼손이 심하거나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 580책을 제외하면 3,000여책으로 봉사하고 있다. 1996년도에 개관할 나머지 복지회관내의 마을도서관을 포함하여 시설비 1억 5천만, 연운영비(인건비, 관리비 포함) 2억여원은 창원시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며, 자료구입비 등에 대하여도 증액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¹⁸⁾

사파동성아파트 1800여 세대 주민을 대상으로 봉사하고 있는 사파동성 마을도서관 이용자

현황은 1995년 8월-10월 임시시범 운영단계를 거쳐, 정상운영한 12월 현재 한달 동안의 이용현황은 회원가입수 일반 199명, 어린이 126명이 하루평균 이용자 일반 83명, 어린이 110명(사회교육 수강자 수 포함), 하루평균 대출자 일반 20건, 어린이 39건 합계 59건의 대출을 하고 있다.¹⁹⁾

봉곡마을도서관은 1995년 11월, 12월 두 달 동안 열람인원 1,483명, 대출책수 755책, 1일 평균 열람 30.3명, 대출 15.4책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²⁰⁾

4. 마을도서관 운동의 방향성

모든 전문 직업군에는 나름대로의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환자는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고, 법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호사를 찾는다. 정보가 필요하면 사서를 찾는 것이 일반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아주 작은 '마을'이란 개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작은 개념인 마을에서 마을도서관을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지역사회가 마을도서관을 통한 공동체가 확립되어지면 삭막한 도시문화가 이웃이 있는 도시로 바뀌어 갈 것이며, 지역주민은 도서관 역할

16) 1995년 사파동성마을도서관 운영평가서.

17) 아파트단지 복지관내에 어린이집을 민간에 임대료 주어 임대료 수입 100만원을 마을도서관 운영비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은 회원가입비 5,000원외에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음.

18)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실무자와 인터뷰 자료임.

19) 1995년 사파동성마을도서관 운영평가서

20) 1995년 봉곡 마을도서관 운영평가서.

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며, 이를 통하여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신뢰성이 확보되어져 기본이 용자군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질 것이며, 사서 직은 직업적 자존심을 가지고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봉사 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직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창원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을도서관운동에 대한 방향성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4-1. 마을공동체

현재 50여만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대도시로 성장한 창원시는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위하여 창원시 전체를 대생활권으로, 5개의 중생활권과 21개의 소생활권(근린주구 단위)으로 구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상기 계획에는 근린주구 단위 시설로 초·중·고등학교, 구매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등의 시설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²¹⁾,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는 마을 주민들의 생활속으로 스며드는 소생활권내의 시설의 등장과 이에 담아낼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창원 도시기본계획(1993년)’에는 창원시 전체를 대생활권으로 하여, 교육, 문화, 구매 등 일상생활을 자체내에서 자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족적 완결도시로 설정하고, 아래로 상북 중생활권, 중앙 중생활권, 상남 중생활권, 가음

중생활권, 기타 중생활권 등 5개의 중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있다.

상북 중생활권에는 서상, 동정, 도계, 명곡, 봉곡 등 5개 소생활권(근린주구 단위)에 17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앙 중생활권에는 반지, 두대, 중앙, 반림, 용호, 사림 등 6개의 소생활권에 13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상남 중생활권에는 사과, 신월, 상남 등 3개의 소생활권에 10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가음 중생활권에는 가음, 남산, 대방 등 3개소생활권에 10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기타 중생활권에는 양곡, 성주, 군지역(창원군, 김해군) 등 4개의 소생활권에 5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²²⁾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9조 2항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단위에 1개이상의 공립문고를 설립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39조 3항과, 동법시행령 제33조에서는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에 사립문고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창원시에는 21개 소생활권에 21개의 공립문고 성격의 마을도서관과 종업원 300인 이상 업체 42개,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에 32개 지역에 사립문고 성격인 마을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실정이다.²³⁾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는 공립문고 성격인 봉곡마을도서관과 사립문고 성격인 사과동성 마을도서관을 1995년도

21) 창원시, 시정백서, 1995. pp. 502-507.

22) 상계서, pp. 501-507.

23) 안희숙, “마을도서관 확산을 위한 지역계획” 도서관인의 맥, 제7집(1994), pp.18-21.

에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대상지역을 점차 확대 할 예정이라 한다.

이웃이 있고 정답이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운동의 일환인 마을도서관 갖기운동은 지역 주민이 지적욕구를 갖고 함께 모이는 장소로서의 마을 도서관, 마을학교를 통한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사회교육기관, 마을의 건강한 삶과 문화를 갖기 위한 지역공동체 삶을 공유하는 문화·예술의 장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도서관 갖기 운동의 '마을'의 개념은 아래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지고 있다.²⁴⁾

“마을은 사전적 의미로 ‘여러 사람이 한 동아리를 이루어 모여 사는 지역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집단·촌락’을 말한다. 즉 마을은 가정과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한 동아리’의 삶의 터전을 말한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마을은 생산과 생활의 기초단위로서 두레·향약이라는 아름다운 유산을 간직한 곳이었다. 하지만 점차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생산현장과 생활현장이 분리되었고, 이는 과거 전통사회의 붕괴, 이농, 인구의 도시집중 등으로 파생된 사회적 병리현상을 만들어 내는 바뀌없는 기차를 굴러왔다. 급기야 바뀌없는 기차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물질만능의 신화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이합집산된 무리는 새로운 정착지에 뿌리를 내렸지만 서로 삶을 나눴던 마을은 찾아볼 수 없다. 행정동, 아파트 단지에서 밀접하게 살아가

고 있지만 아직 서로가 낯선게 현실이다. 새롭게 재편된 구조속에 ‘마을’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과거 전통사회에서 공동체로 묶어주던 두레, 향약, 계 등의 유산을 현대적 의미로 새로이 재해석해 낼 수 없을까? ‘전지구화(globalization)’라는 지구적 연대의 경향속에 자칫 ‘세계화’는 꼭두놀음에 불과한 것이 되지 않을까? 지속가능한 사회도 결국은 사회의 가장 기초집단 속에서 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의 자유, 삶의 질, 삶의 안정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 개인이 소속한 기초집단의 사회적 연대, 즉 마을공동체 속에서 가능한 것이고, 이는 사회적 정의와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는 가정을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의 정수로 지역공동체의 핵이 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운동의 기본 축은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마을도서관을 세우는 일이다. 마을도서관을 중심으로 전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회교육 패러다임인 마을학교를 운영하며, 여기서 배양된 힘을 바탕으로 마을 문화·예술제를 실시하여 살맛나는 이웃을 만드는 것이 마을 공동체 운동이다.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 마을도서관에 실시하고 있거나 구상중인 마을학교·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표 2)와 같다.²⁵⁾

공공도서관의 목적에 대하여 ‘도서관및독서진

24) 경남 도서관 및 정보문화발전연구소, 비전21, 마을을 열자, 미래를 열자!!(프린트물)

25) 상계자료 내용중에서 추출한 자료임.

〈표 2〉 마을학교·문화예술 프로그램

대 상	교 실 명	내 용
유 아	공동육아교실	육아양육을 공동으로 모색(학부모회 구성)
어 린 이	방과후교실 지구촌 교실 지도력 교실 체능교실 농촌교실 취미교실 글쓰기교실 노래교실	학교수업의 보충 세계각국의 문화·풍습·지리 등의 학습 등 회의 진행법, 토론법, 글쓰기 및 독서생활 축구, 럭비, 수영, 배드민턴, 탁구 등 자연, 식물채집, 자연사랑 등 독서, 여행, 캠프, 해양탐사 등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 마을어린이 합창단 구성
청 소 년	방과후교실 지구촌교실 지도력교실 어린이체능지도자 교실 연극교실 독서교실 노래교실 취미교실 사랑방	학교수업(국·영·수)보충 세계각국의 언어, 문화, 풍습, 지리 등의 학습 회의진행법, 토론법, 연설문작성, 연설법, 글쓰기 및독서생활 어린이들에게 각체능활동의 지도를 통해 지도자 의식기름 연극이론, 연극과 자기표현, 대사의하기, 연극의 실제 바른독서법, 독서토론,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 청소년 중창단, 기-타모임 등 여행, 캠프, 탐사, 문학기행, 스포츠 등 진로문제, 이성, 가정 등에 대한 토론모임
청 년	레크레이션교실 여가교실 취미교실 사랑방	레크레이션지도법, 이론과 실제 등 산행, 낚시, 스포츠 등 사진작가, 비판작가여행, 문학기행, 역사기행 등 결혼, 가정,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주제로 토론모임
여 성 (주부)	여성자신교실 취미교실 교양교실 컴퓨터교실 부부사랑교실 사랑방 독서교실 가정교실 여가교실	부부관계, 소비자, 환경, 여성, 자녀교육, 문학등 종이접기, 꽃꽂이, 실내인테리어, 사진, 수예 등 강좌 : 가정의료, 가정세무, 구연동화, 자동차 등의 주제 컴퓨터의 이론과 실기 부부관계회복, 부부역할훈련, 여행등 토론모임 : 여성, 소비자, 자녀교육 등의 주제로 독서토론, 자녀독서지도법, 글쓰기 등 가정법률, 관혼상제, 가정의료, 세금 등 사진, 문학, 역사기행, 스포츠 등
남 성	가장교실 취미교실 사랑방 가족신문편집교실 건강교실	가장의역할, 자녀교육, 부부관계 등 낚시, 산행, 실내인테리어 등 토론모임 :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등의 주제 가족신문의 이론과 실제 명상, 요가, 식생활 개선법 등
공 통	기차여행 역사기행 자원봉사교실 해양캠프, 해양탐사대	가족이 함께 일정코스를 선정해 여행함
문화·예술행사		* 마을축제 * 가족동요부르기 대회 * 마을음악회 * 우리 농산물 직거래 * 청소년 문화마당 * 알뜰바자회 * 마을갤러리

홍법' 제2조 3항에서는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이라고 하고 있고, 미국의 '전후 공공도서관 기준'(1943)에서는 교육, 정보, 예술감상, 연구, 레크레이션 등의 다섯가지 목적을 제시하였고, 영국 도서관협회의 '공공도서관의 목적'(1971)에서는 교육, 정보, 문화, 여가를 공공도서관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²⁶⁾

위에 제시된 마을교실과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문화활동과 평생교육에 해당되며, 전후 공공도서관 기준(1943)의 교육, 예술감상, 레크레이션에 해당되며, 공공도서관 기준(1971)의 교육, 문화, 여가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므로 공공도서관의 목적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세워 가꾸어 가고 있는 마을도서관을 바라보면서 풀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물뿔들을 연상케 한다.

그동안 앵무새처럼 반복되어온 공공도서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윗의 물뿔들은 아주 작은 개념의 '마을'이란 물뿔들이다. 마을도서관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사서직은 지역사회에 신뢰성이 확보되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정보가 필요한 사람은 사서를 찾게 될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기본이용자군을 자연스럽게 확보하게 될 것이고, 사서들은 이들에게 직업적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4-2. 선과 축의 연결

창원시에는 5개의 중생활권이 있다. 이 중 중앙 중생활권에 해당하는 중앙동과 용호동에 창원도서관과 창원시립도서관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창원시에는 상북 중생활권과 가음 중생활권에 2개의 공공도서관 설립계획 중에 있고, 21개 소생활권 중 봉곡 소생활권과 사파 소생활권에 마을도서관이 세워져 있고, 1996년 상반기 중에 대원동과 팔용동에 마을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고, 여타지역에도 마을도서관을 행정동과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²⁷⁾

이용자 확충을 위하여는 생활주변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주변에 도서대여점이 성업중인 것도 생활주변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창원시에서는 공립문고 성격인 마을도서관을 마을단위로 세우는데 행정책임자의 의지도 있고, 이를 실행할 민간단체인 '경남정보사회연구소'도 세워져 있어 운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과거 마을문고 운동이 실패한 요인중에 하나가 농촌마을 단위로 세워진 마을문고가 상호 선으로 연결된 망과 이들을 지원해줄 지역 공공도서관과 축으로서로 연결 되지않아 점조직 상태로 독자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창원시에는 5개 중생활권 중 기타 중생활권을

26) 이용남, "공공도서관 목적의 구조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한국문헌정보학회), 제22집(1992.6), pp. 42-47.

27) 2개 공공도서관 설립 계획은 '95 경남공공도서관대회에서 창원시장이 발표하였으며, 행정동마다 마을도서관을 세울겠다는 계획은 민선시장인 창원시장의 선거공약 사항임.

제외하면 4개의 중생활권에 2개는 공공도서관이 세워져 있고, 향후 2개의 공공도서관이 세워질 예정이어서, 중생활권 단위에는 공공도서관이 모두 세워질 전망이고, 이들 중생활권아래 21개의 소생활권에 세워질 마을도서관(공립문고 21개, 사립문고 종업원 300이상인 업체 42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32개)은 상호 선과 축으로 연결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및서진흥법 제40조 2항과 3항에서는 공립문고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공립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지도·지원을 받아 운영하며, 사립문고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을 받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선과 축의 연결이란 중생활권내의 공공도서관과 소생활권내의 마을도서관이 연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연계 운영이란 자료의 공동이용이 필수적이다.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하여는 개개 도서관 단위로 도서관자료 D/B화와 지역정보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다행히 창원지역에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RIN-NET(Reginal Information Network)을 지역정보망으로 가동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창원지역에는 지난해 부터 한국기계연구원을 중심으로 지역정보망이 본격 가동되고 있어 통신망 이용자 수는 급증하리라고 본다. 지역 공공 및 마을도서관 자료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자 확보를 극대화 하기위해서는 개개 도서관 단위로 D/B가 구축되어 지역정보유통망을 통한 선과 축의 연결이 급선무이다.

4-3. 신뢰성 확보

창원지역의 마을도서관 신뢰성 확보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어느 계층을 주 대상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가? 이는 창원지역 주민들의 구성분포와 요구도를 분석함으로써 대상 계층 선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제2장에서 창원지역의 주요한 계층은 30대와 제조업 종사자라는 것을 분석하였다.

마을도서관의 마을교실 대상 계층을 보면, 사파동성 마을도서관에는 11개 프로그램 중 아동 4개, 청소년 1개, 주부 6개, 봉곡마을도서관은 총 10개 프로그램 중 국민학생 5개, 청소년 1개, 주부 대상으로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총 21개 프로그램중 43%가 주부대상 프로그램이고, 43%가 국민학생 대상 프로그램이다.

상기 예에서 창원지역에 거주하는 주요한 계층인 30대와 제조업 종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다.

현재 창원지역 마을도서관의 주요한 이용자군은 주부들과 학생계층이다. 마을도서관의 전략도 여기에 치중되어져 있다. 현재의 주요한 이용계층이 주부들과 학생들이므로 여기에 순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도서관이 주민들속에서 살아남으려면 현재 창원시민의 주요한 계층구조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의 주요한 계층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되어지면 이들 요구에 맞는 봉사가 가능해질 것이다. 즉, 창원지역 도서관들은 이용자 확보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창원지역의 주요한 계층인 30대와 제조업종사자들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도서관 자료를 중심으로 봉사하는 조직체이므로 일차적으로 이들에게 맞는 장서개발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창원시의 주요한 계층인 제조업체종사자를 위하여는 산업관련 자료개발이 중요할 것이다. 이들 계층에 기본이용자가 확보되어지면, 다음으로 연령별로 주요한 계층은 9세이하, 20대, 10대, 40대 계층순으로 기본이용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체 종사자의 15%를 점하고 있는 공공행정, 교육, 기타 사회 개인서비스업 종사자들에 대한 마케팅 전략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계층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기존에 어느 정도 기본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계층인 주부와 국민학생들에 대한 전략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역 마을도서관들이 계층별로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장서개발이 이루어져 철저한 자료중심의 봉사가 이루어질 때 지역주민들로 부터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창원지역 마을도서관들이 지역주민들로 부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계층의 요구에 맞는 장서개발이 급선무이다. 이를 통하여 현재의 주요한 이용계층인 주부, 학생층에서 이용계층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도서관 설립목적에 맞는 공중에 봉사하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과거 마을문고 운동은 농촌을 대상으로 시작

된 운동이었고, 문고회라는 자원봉사 단체에서 운영하였다. 이농현상과 함께 문고회의 운동성 상실과 지적기반의 부족, 재정의 문제 등으로 대부분 실패하였다.

창원시를 중심으로한 마을도서관 갖기 운동은 과거 마을문고 운동과는 접근 방법이 판이하게 다르다. 마을도서관 운영은 사서요원 1명, 사회교육전문요원 1명의 전담직원을 두어 마을단위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정은 '경남정보사회연구소'의 이사들의 후원금과 창원시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과거 도서관관련 운동들이 실패한 요인중에 하나가 지적기반의 부족과 방향성 상실이었다. 그러나 연구소 내에는 지적기반과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관련분야 대학교수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자료 준비차 인근 도서관들을 방문해 보았다. 과거와 다름없이 생동감 있게 봉사를 하고 있는 사서들도 있었지만, 사서가 된지 수년만에 지쳐 있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다.

무엇이 이들을 지치게 만들었을까? 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 할 수는 없었을까?

그 동안 도서관 관련 연구 중에는 현장사서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글들 보다는 사서들이 문제해결에 주체자로 나서지 못함에 대하여 지적하는 미시적 접근을 하는 글들이 많이 있었다. 사서들이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 도서관운영 등에 대하여 주체자로 나서야함은 부인할 사람이 없다.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창원지역 도서관의 문제해결은 도서관 내부에서 출발되어지기 보다

는 도서관 주변의 환경에서 부터 출발되어 저야 한다. 즉, 도서관 주변환경에서 부터 출발된 거시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

도서관 주변환경 개선의 주체자는 누가 나서야 할 것인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중앙에 힘있는 자와 연을 닿을 수 있는 자가 문제해결을 가장 신속하게 하였다. 지방화 시대에는 의식있는 지역주민, 즉 의식있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주변환경 개선의 주체자로 나서야 한다.

의식있는 이용자를 점조직 상태로 그대로 두면 운동성을 확보 할 수 없다. 창원시의 경우 '경남정보사회연구소'라는 연구·실행단체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운동성을 확보하듯이 지방화 시대에는 지역단위로 운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연구·실행단체 안에는 지역의 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도서관 문제에 관심있는 시의원들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들과 함께 마을공동체를 일구어 가면서,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시의회에 청원을 하거나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서직 관장도 영입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면 이러한 운동의 방향성과 지적기반은 누가 제시하여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책임은 문헌정보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즉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의 몫이다.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도서관 현장의 문제를 지적하는 비판자의 입장에 서기 이전에 도서관 주변환경을 개선시킬 운동성을 확보하는 일에 우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 사서직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을 우리는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경남매일. 慶南年鑑, 1995. 마산: 동 신문사, 1995.
- 경상남도 교육청. 경남교육통계연보, 1995. 창원: 동 교육청, 1995.
- 경상남도. 慶南의 社會指標, 1994. 창원, 1995.
- 경상남도. 事業體基礎統計調查報告書, 1994. 창원, 1995.
- 김세익. “學生으로 부터 市民에게로; 韓國 公共圖書館의 座標” 도서관보, 제1호 (1992.9), pp.99-103.
- 김영기. “도서관 현상을 통해 본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 圖書館學論集(韓國圖書館.情報學會), 第19輯(1992), pp.145-209.
- 김영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현실진단과 대안” 第33回 全國圖書館大會主題發表論文集, 韓國圖書館協會(1995), pp.31-52.
- 김영신.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이용층의 이용 목적의 문제” 韓南大 學校論文集, 제17집(1989), pp.127-139.
- 김영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대중화 방안” 도협월보, 제11권2호(1970), pp.41-48.
- 김정근·장덕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발전의 현단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한국문헌정보학회), 제27집(1994.12), pp.3-

74. 문화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동 부, 1990.12.
- 문화체육부. '95년도 전국공공도서관현황. 서울:동 부, 1995.
-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새마을문고 운영실무. 서울:동 중앙회, 1984.
- 서혜란. “公共圖書館서비스 供給에서의 住民參與에 관한 研究” 國會圖書館報, 제32권 제5호(1995, 7.8), pp. 45-62.
- 서혜란. “한국의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현황과 활성화 전략” 圖書館學論集(韓國圖書館.情報學會), 第22輯(1995.6), pp. 171-204.
- 안희숙. “마을도서관 확산을 위한 지역계획” 도서관의 脈(창원전문대학 도서관과), 제7집(1994), pp.14-22.
- 양재한. “公共圖書館과 새마을文庫의 連繫 方向; 慶尙南道를 中心으로” 昌原專門大學 論文集, 第3輯(1985), pp.509-534.
- 양재한. “지역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경남신문사 주최, 공공도서관 활성화 세미나, 1993.
- 양재한. “멀티미디어 시대를 대비한 공공도서관의 세계화 전략” '95 공공도서관 경남지역 세미나 주제강연자료집, pp.5-24.
- 여의도연구소. 세계화시대의 지방화. 서울:동 연구소, 1995.
- 윤정기. “地域社會發展을 위한 公共圖書館의 役割” 도서관, 제45권 제3호(1990, 5.6), pp. 28-38.
- 이용남. “公共圖書館 目的의 構造에 관한 研究” 圖書館學(韓國文獻情報學會), 第22輯(1992. 6), pp.29-82.
- 조상현. “공공도서관이 시민에게 접근하는 길; 체험을 중심으로” 도협월보, 제6권 3호(1965), pp.85-87.
- 창원상공회의소·경남신문사 주최. 21世紀를 向한 昌原市의 座標와 發展課題; 심포지움 자료, 1995.5.26
- 창원시. 市政白書, 1995. 창원:동 시, 1995.
- 창원시·창원시사. 창원:동 시, 1988.
- 최성진. “광복 50년과 도서관의 세계화” 第33回 全國圖書館大會主題發表論文集, 韓國圖書館協會(1995), pp.7-14.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1993, 1994. 서울:동 협회, 1993, 1994.
- 한국도시행정연구소. 1995 全國統計年鑑, 下. 서울:동 연구소, 1995.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국민 독서 생활화방안 연구: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서울:동 연구소, 1992.6.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도서관 발전정책 및 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동 연구소, 1993, 9.
- 한윤옥. “도서관의 공부방 현상탈피를 위한 도서관의 자세” 도서관, 제48권 제5호(1993, 9.10), pp.37-57.